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5. 12 ~ 2019. 6. 1 제204호



▶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

제공: WMM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

“박해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테러범을 용서한 스리랑카 교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힌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복음주의 교회 담임목사가 테러범들을 용서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티칼로아에 소재한 시온교회의 로산 마헤센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끔찍한 자살폭탄 테러로 교인들은 상처를 입고 분노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격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헤센 목사는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님,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라이프’라는 스리랑카 기독교 단체가 공유한 영상을 통

해 교회에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 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전해 준 모든 말들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서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뜻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NPNEWS]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린도전서 1:18,30)

기도 |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스리랑카 교회에게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을 통해 테러범뿐 아니라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호는 6월 2일자로 발행됩니다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나타내시리라

인도양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진 섬나라 몰디브는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 빛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을 갖고 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한 풍경이 날마다 연출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은 이렇듯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지만 아픔도 있다. 이 섬나

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해있다. 또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곳 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배척을 당하고 심하면 투옥되며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된 외국인 선교사도 허다하다. 그러나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

광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터가 무너져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생명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구한다. [GNPNEWS]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시편 57:5)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9)

일요일마다 하는 취미 생활이 있어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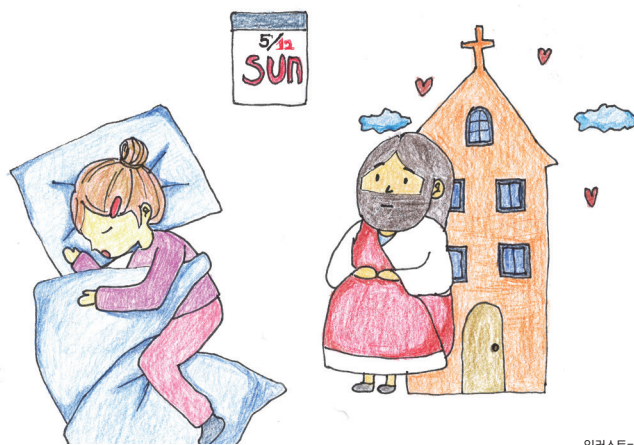
“일요일마다 하는 취미 생활이 있어요. 오후엔 낮잠도 좀 자고 싶어요. 주중에 바빠서 주말로 미루어 놓은 일들도 좀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름 굳어진 생활 방식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군요. 그러나 당신의 이 타당한 이유가 전혀 통하지 않는 날이 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

신 것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좋고 생각한 생활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사느라 당신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자처하여 삶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으로 쫓아낼 차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는 당신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습니다.



일러스트=김경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실 때 당신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당신의 새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때문에 당신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시고 당신에게 천국 문을 열어 주십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죽음 후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초중고 교과서, 성윤리 왜곡 및 미혼모 '정상 가족'으로... 개정 시급 2면

기획
ISIS가 떠난 지역에서 다시 부활하는 교회들 3면

인터뷰 | 이성렬 선교사
“원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초중고 교과서, 성윤리 왜곡 및 미혼모 '정상 가족'으로... 개정 시급

아산지역 학부모, 초중고 교과서 분석, "사용 중단" 주장



▶ 지난 27일 아산 지역 우리아이킴이학부모연대가 '초중고 교과서 성교육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우리아이킴이학부모연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보건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 지역의 우리아이킴이학부모연대(대표 박명희, 이하 우학연)가 최근 발표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성교육문제점 보고'에 따르면, YBM중학교 보건교과서(2009년 교육과정)는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 성적 소수자를 얹힌 형벌로 다스린 사례를 들며 현재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는 또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머리에 히잡을 둘러 가슴까지 가리게 하는데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

학생의 히잡 사용을 금지했다며 이슬람의 여성차별 제도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히잡이 이슬람의 정복전쟁 시기에 정복지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합법적인 시대였기에, 자기 영역 여성을 구분하기 위해 히잡을 쓰게 한데서 유래한다고 밝혔다.

천재교육 중학교 보건교과서(2009년)는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성성'에 대한 설명을 이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선천적인 성별과 무관하게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성 정체성에 혼돈을 초래할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화사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년)는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와 어

디까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는냐는 내용이나 성적 의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예시로 이성 친구를 드는 등 중학생도 섹스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학생에게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로 피임방법교육을 중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들샘의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2015년)는 미혼모를 정상적인 가족형태로 기술되어 있고, 후천성면역결핍(HIV)감염 경로의 93%가 동성애라는 사실과 에이즈가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 99%라고는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남성 동성 성행위라는 사실을 생략해 동성애의 위험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교육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립성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아하!성문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의 성교육은 남녀 학생들에게 인조 남자 성기에 콘돔 씌우기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성적 호기심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학연측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교과서 사용 채택을 중단할 것과 건전한 교과서가 만들어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GNPNEWS]

북한 정치범 수용소, 기독교인 5만 명 수용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1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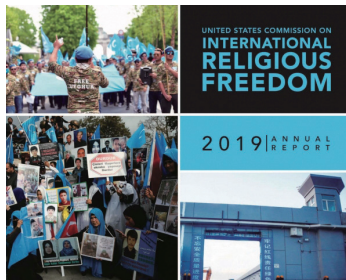
이 위원회는 대북 제재나 완화는 종교자유 등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한다.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 402조와 제 409조(잭슨-베니 수정조항)에 따라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이후 구

제는 한층 강화됐으며, 종교적 표현이나 활동,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체포돼 고문과 투옥은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처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발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하고 있다. 관리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김 씨 정권의 핵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8 연례보고서' 표지(출처: voakorea.com 캡처)

에 혹사당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명간)관 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왔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GNPNEWS]

제3회 인천동성애대책 아카데미 5월 25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모임이 주관하는 제3회 인천동성애대책 아카데미가 5월 25일 인천 필그림교회(연수동)에서 열린다. 이날 참여하는 강사로는 염안섭 원장(수동

연세요양병원), 이정훈 교수(엘정 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탈동성애 자이자 탈동성애 사역자인 박진권 선교사(아이미니스트리)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날 모임의 사전 등록자에게는 등록비(1만원)가 면제된다. 문의 ☎ 010-8107-6603 [GNPNEWS]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ISIS, 앞으로 기독교 상대로 복수할 것

스리랑카 교회를 테러했다고 밝힌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로 추정되는 인물이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 기독교를 상대로 복수를 계속할 것이라는 영상을 지난 29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언론회, 부모 신고하라는 교과서는 절대 반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최근 중학교 교과서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든지, 여자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이를 인권 침해로 여겨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역사적 가족 전통과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 등의 인식에도 부합할 수 없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기에 이러한 교과서를 절대 반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을 강조하느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못한 채 자신만 옳다 여기는 악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든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믿고, 질서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소서.

美 포틀랜드 교회, 노숙자 위한 쉼터 열어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 소재한 나자렌중앙교회(Nazarene Central Church)가 노숙자들을 위해 15개의 쉼터를 짓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회는 올 여름 공식적으로 노숙자들의 쉼터인 아가페 마을(Agape Village)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복음을 들으며 구원을 얻는 통로로 사용하셔서, 동성애와 범죄로 황폐한 미국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으로 회복하시옵소서.

"소말리아 국민 170만 명 가뭄으로 식량난 직면"

유엔은 소말리아 국민 중 170만 명이 2개월간 지속한 가뭄으로 가축을 잃고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되어 6월까지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가뭄으로 95만 4000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구원하시는 주님께 소말리아의 영혼들을 의탁하오니, 그 땅에 비를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소소서. 아울러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들에게 심겨져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5월 13일 ~ 5월 25일

- 5월 13일~5월 18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4501-0059, ▶강원 안흥 / 복음사관학교(오**)010-3233-4641, 5.13(10~15시)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5.13~18(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5.14(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5.15(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5.17(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5.17(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5.17(10시)~18(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황**)010-7766-3100, 5.18(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외 9교회 진행중.

- 5월 20일~5월 25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전남 광주 / 예수마음교회(박**)010-2330-5849, 5.20-21(06-20시) ▶인천 서구 / 사랑교회(염**)010-5657-9191, 5.20-21, 24-25(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5.20(07시)~24(23시) ▶강원 강릉 / 은강교회(박**)010-7439-7020, 5.20-24(19-24시) ▶광주 남구 / 십자가복음교회(김**)010-9883-2347, 5.21, 24(10:30~12시)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김**)010-6269-4821, 5.22(06시)~23(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5.23(19:30~21시), 24(20~22시) ▶경기 고양 / 그루터기교회(신**)010-4944-3735, 5.23-24(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290-4316, 그외 14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ISIS가 떠난 지역에서 다시 부활하는 교회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는 2012년부터 중동을 무자비한 잔혹행위와 끊임없는 내전 가운데로 빠트렸다. 사탄은 ISIS와 전쟁을 이용해 기독교인을 모두 말살시키려고 위협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니스웨 평원에서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중동에서 교회의 부활은 태초부터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세상의 그 어

떤 통치자보다 훨씬 더 강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나타내는 표시다. 전 세계 언론들은 중동 교회의 미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2014년 초에 한 언론매체는 “이것이 중동 기독교의 끝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동 기독교인들과 그 신앙에 관해 암울함을 시사하는 사진을 실었다. 중동 전역의 기독교인들은 ‘개종하거나, 떠나거나, 죽어라’는 최후통첩을 받았다고 했다.

한때, 시리아 전역과 이라크까지 한국 면적의 절반 정도인 5만 4400km²를 지배하던 ISIS는 약 800만 명의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통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ISIS는 시리아 동부 바구즈를 끝으로 모든 거점을 잃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지난 5년 동안 겪은 일들과, 중동 교회와 함께 기도해 온 수백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이라크의 카라코쉬(Qaraqosh)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 맞이한 2018년 부활절 예배 모습(출처: opendoorsusa.org 캡처)

기독교 발생지로 돌아오고 있는 주민들

ISIS가 점령했던 지역에 8360가구가 돌아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발생지인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1206채의 집들이 복원됐다. 3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공동체는 고사하고, 고향땅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2018년 11월 말까지 5122가구가 카라코쉬로 돌아왔고 487개의 주택들이 재건됐다. 바르텔라(Bartella)에는 1325개의 가정이 돌아왔으며 300채의 주택이 복원됐다. 상황이 호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카라코쉬에서 주택 복원 위원회를 감독하고 있는 조지 목사는 예상보다 지원이 잘 되지 않아 주택 복원이 더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왜 일부 가정들이 자신들이 살던 터전으로 돌아오기를 꺼리는지 말했다. 도로는 여전히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의료 시설도 부족하다. 특정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르빌로 가야만 한다. 바쉬카(Bashika)의 폴로스 목사는 “지난 밤 제 딸이 복통이 있었지만 새벽 2시에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우

리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그 마을에는 10~15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들이 돌아왔다. 집이 완전히 파괴돼 돌아와도 당장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2017년 4월, 기독교인들은 종려주일을 지키기 위해 카라물레스(Karamles)의 한 교회에 모여 기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은 위기가 심해질수록 기도로 결집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중동의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삶과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돕고 있다. ISIS의 계략은 중동을 악과 죽음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혼란과 비통함 속에서 무슬림들이 기적처럼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 신실하고 용감한 성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놀랄 정도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다. 교회들은 더욱 주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 요한나 페트로스 모세 목사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에 대해

“수년간의 추방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보고 있다. 이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다. 교회들이 더 충만해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ISIS와 기타 극단주의 세력들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ISIS가 시리아 바구즈 전투에 대한 복수로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를 저질렀다. 박해는 여전히 실재한다. 카라코쉬의 조지 목사는 더 큰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 더 많은 안전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곳에서 기독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적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생존을 위해 매일 싸우고 있다.” 박해로부터의 보호 외에도, 더 많은 집과 기업들이 복구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의료 서비스 개선 및 도로도 보수하고 학교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중동 교회들은 지금 전 세계 교회의 기도와 원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길은 길고 험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왔고, 돌아

지난 5년간의 중동지역 일지

- ▶2012년~2013년: ISIS의 전신 ISI(Islamic State in Iraq)는 ‘브레이킹 더 월(Breaking the Walls)’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들은 8개의 교도소를 장악하여 500명 이상의 지하드(이슬람교의 극단적 요원)들을 탈옥하게 하였는데 이들 중 다수는 알 카에다의 수석 요원이었다.
- ▶2013년 8월: 시리아의 알레포 북부가 공격당했다. ISIS가 시리아로 들어와 곧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집단인 ISIS(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로 명칭을 변경했다.
- ▶2014년 1월과 6월: 1월에는 시리아의 락카, 6월에는 이라크의 모술이 함락됐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시 대피소로 피난해 3년을 지냈다. 이슬람 군인들은 칼리프 국가를 세우고 락카를 실질적 수도로 선언했다. 그 해 말, 이라크의 최대 기독교 마을인 카라코쉬(Qaraqosh)를 포함한 작지만 중요한 도시와 마을이 ISIS에 의해 점령됐다.
- ▶2014년~2017년: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거나 쫓아내면서 공포정치를 시행했다. 무슬림이 아닌 여성들은 노예로 팔려나갔고 교회들은 사격장으로 변했다. 중동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다른 소수 종교인들을 비롯한

-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지는 일들이 집단학살로 소개됐다.
- ▶2016년 10월: 모술에서의 1년간의 전투 끝에 니스웨 평원은 해방됐고, 전쟁을 피해 고향을 등진 주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 ▶2016년~2018년: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을 맞이한 것은 불타고 파괴된 집들이었다. 누가 봐도 ISIS가 고의적으로 수백채의 집에 불을 낸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들을 복구하는데 협력했다. 고된 재건축이 시작됐다.
- ▶2017년 7월: 모술이 탈환됐다. 3개월 후, 연합군은 ISIS를 락카 국립병원과 파라다이스 광장에서 몰아냈다고 발표했다. 파라다이스 광장은 이슬람 지하드들이 참수형과 십자가형을 무참히 실행했던 악명 높은 곳이었다.
- ▶2017년 10월: 이라크의 마지막 주요 중심지가 락카에 이어 탈환됐다. 이 승리들은 중동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많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 ▶2018년 부활절: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에 모였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 ISIS에 의해 쫓겨났던 카라코쉬 성도들이 마을로 돌아와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모습(출처: opendoorsusa.org 캡처)

오고 있고, 또는 돌아오려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공유하며, 희망과 복음의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고, 또 앞으로 맞게 될 시련들을 통해 그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출처: 오픈도어USA> [GNPNEWS]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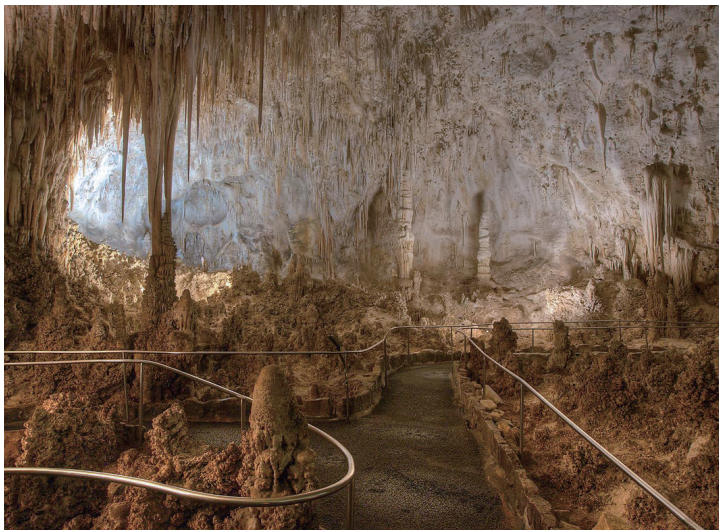
기획 | 창조 이야기(15)

믿을만한 인류의 기록이 대부분 6000년 미만인 이유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동굴관광을 해 본 사람은 이 문구가 기억날 것이다. ‘만지지 마세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켄터키의 칼즈배드 동굴에도 이런 안내판이 있다. ‘이것은 2억 5000만 년 전에...’ 그 종유석들을 연구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종유석이 가장 빨리 자랄 수 있는 속도는 1000년에 2.5인치(약 6.4cm) 정도로, 그것이 최대 성장 속도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예로 링컨 기념관 아래에는 50인치나 되는 종유석들이 있는데, 그건 40년 만에 자란 것들이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썩기도 전에 유석으로 덮여 버린 박쥐도 있고, 플로리다 주 팬사콜라의 한 냉동 창고 위에 2인치(약 5cm) 크기로 자란 종유석도 있다. 인디



▶ 칼즈배드 동굴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공간은 길이 1220m, 너비 191m, 높이 78m의 ‘빅 룸(Big room·사진)’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동굴이다. 석회암이 오랜시간 동안 지하수에 녹아 형성된 동굴 안에는 수많은 종유석(석회 동굴 천장에 매달려 있는 고드름 형태)과 석순(종유석을 타고 흐른 물에 용식되어 바닥에서부터 자라는 형태), 석주(종유석과 석순이 만나 이룬 기둥)가 마치 예술품처럼 형성되어 있다(출처: asergeev.com 캡처)

애나에 있는 어떤 사람이 4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 석회암 사이로 새어 나온 물로 건물 지하에 커다란 동굴이 생겼다. 또한 호주에서는 55년 동안 폐쇄되었던 탄광을 다시 조사해보려고 열어봤더니 55년 만에 커다란 동굴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7년 동안 물이 썼

던 파이프에도 13인치(약 33cm)나 되는 종유석이 생긴다.

‘1000년에 2.5인치 자라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종유석은 사실 1년에 2인치 정도 자란다.

와이오밍 주 터모폴리스에 사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마당에서 광물 온천이 흐르기에 1903년에 파이프를

박아 놓았다. 그 파이프 위에서 물과 거품이 흘러내려 생긴 분수를 ‘티피 분수(TeePee fountain)’라고 부른다. 시간이 흐른 만큼 물이 증발하면서 광물이 쌓였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싱크대에도 이런 광물이 쌓인다.

한번은 비행기를 타고 서쪽 지방위를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땅의 침식 패턴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러고선 탄식했다. “와, 이 지역은 홍수로 다 파괴된 적이 있구나.” 내 말은 세상이 홍수로 파괴된 적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들 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의 ‘주요 필기 체계의 기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필기 체계는 약 기원전 3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오래된 언어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완전했다.’

중국인들은 서기 2000년을 4700년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홍수 때로부터 달력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노아를 ‘푸하이’라고 부른다. 사형이 등장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3800년 전의 것이고, 히브리 달력의 서기 2000년은 5760년이라고 한다. 영국의 색슨족은 아담까지 거슬러가는 족보를 가지고 있고 덴마크인들과 노르웨이의 왕은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처럼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왜 6000년 미만인 것일까?

그것에 대해 내게 이론이 있다. 여러분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다. 과학적으로도 옳다. 젊은 지구에 관한 증거는 넘쳐난다.

그러나 세상은 학생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는 ‘더 오래된 것’들의 증거들만 보여준다. 앞부분에 했던 보물 상자의 동전이야기를 기억하는가?(6회) 가장 최근의 동전에 대해 다루어지지 오래된 동전에 대해 가르치면 안 된다. 지금의 교과서들은 더 이상 과학책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진화론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더 큰 그림인 ‘신세계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 발리의 블림빙사리(2)

98%의 힌두교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꿈

1933년 당시 네델란드의 식민통치(약 350년간) 상태였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포항에게 허락한 비자를 취소하고 2년 만에 강제 추방했다.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제이주 정책을 시행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악한 귀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 발리 서북지역 ‘블림빙사리’로 이주할 것을 제안했다. 30여 명이 정탐을 떠났고 1939년 10월 30일, 기독교인들은 블림빙사리로 떠났다.



▶ 블림빙사리 마을의 브니엘(PNIEL)교회 내부 예배단 모습(출처: Krisna Adi 유튜브 영상 캡처)

얼마 후 자멸 할 줄만 알았던 기독교인들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밀림지역을 개척하여 십자가 모양의 큰 길을 만들고 그 길의 중심부에 교회(PNIEL, 브니엘교회)를 세웠으며 제비를 뽑아 소유지를 나누고 논과 밭을 경작하

기 시작했다. 이후 경비행기를 타고 이 밀림지역을 지나던 한 독일인의 발견으로 블림빙사리의 기독교인들이 건재함이 드러났다. 이들의 놀라운 역사와 소식을 듣게 된 수많은 세계 각지의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발리 정부도 블림빙사리의 존재에 대해 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전기와 전화가 설치되었고 첫 초등학교가 세워졌다. 다른 지역 힌두교인 학생들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 블림빙사리로 모여들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최고의 교육도시(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기에 문맹이 없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선출되어 명예를 얻고 있고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

단기선교팀에게 나누는 이런 블림빙사리의 이야기를 듣던 운전기사 꼬망 에디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그날 밤, 꼬망에게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잠들기 전 예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난 꼬망은 아침식사 시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뒤 이은 고아원 사역까지

함께 한 꼬망은 내게 한번 꼭 자기 고향 집에 같이 가줄 것을 부탁했다. 자신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함의 복음을 들어 알지만 자식들과 아내는 그것을 모른다고 그 복음을 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꼭 같이 갈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꼬망의 집에 방문하여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막역한 선교사님 가정이 동행하여 더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가정이었다. 사실 꼬망은 대가족 5가정이 모여 사는 집의 힌두 제사장(뽀망꾸)이었고 꼬망의 아버지는 그 지역(누가라)의 힌두 대제사장(뽀망꾸 데사)이었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가족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냉담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가족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돌아오기 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할 것”이라는 찬양을 불러주고 그 메시지를 전하며 마음껏 그 지역을 축복했다.

꼬망은 말했다. “수없이 인도했던 힌두제사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살아 계신 창조주를 그 날, 내 죄를



▶ 운전기사 꼬망 에디(왼쪽에서 세번째)의 집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사진=최기석)

고백했던 순간 느꼈다.” 꼬망의 고백을 주님이 아신다.

발리는 신들의 섬이라는 별명을 지닌 인구 약 450만 명의 작은 섬이다. 신혼여행지와 관광지로 유명한 이곳은 사실상 우상숭배가 만연한 미전도 종족이 거주하는 섬이다. 인도네시아의 87%가 무슬림인 것에 반해 발리의 98%가 힌두교인이다. 그렇기에 ‘발리 선교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 다를 바 없다.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주님은 이 선교를 쉬지 않으실 것이다. 발리 땅을 위해 기도

를 요청한다. 꼬망과 그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블림빙사리를 위해.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허다한 주님의 백성을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께서 발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구원의 은혜를 덮으시고 온 열방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 <끝> [GNPNEWS]

인도네시아 발리=최기석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원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서산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한참 달려야 보이는 헤브론선교대학. 그 안에 있는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사무실은 폐교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빼거덕 거리는 복도를 통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성렬 선교사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든 햇살을 머금은 조용한 사무실에는 몇 개의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빼곡히 들어서 있는 수많은 책들, 낡은 컴퓨터와 자그마한 티 테이블 정도가 눈에 띄 정도로 사무실은 소박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 복음기도신학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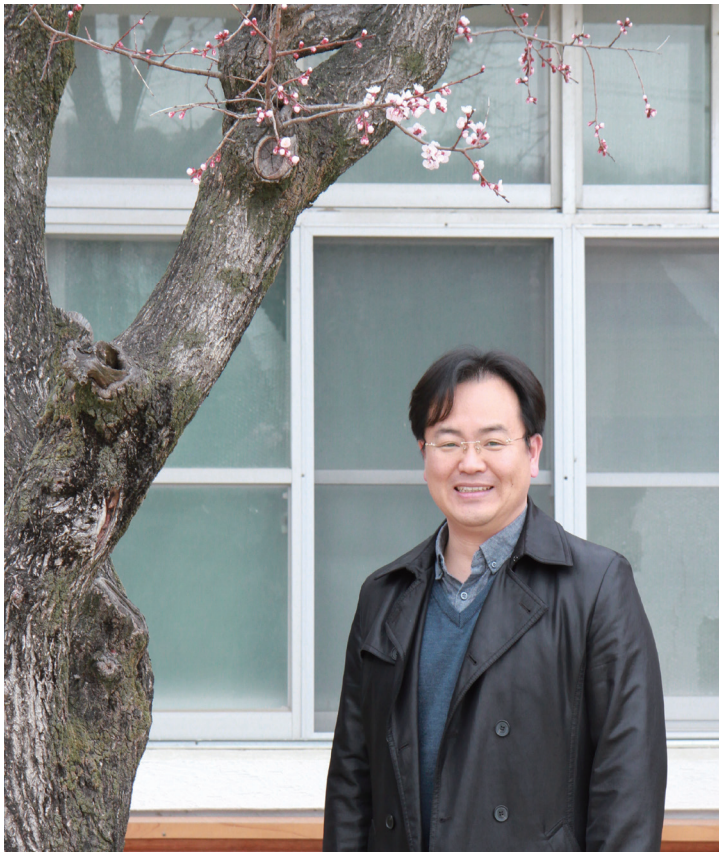
“현재는 헤브론선교대학의 신학대학을 운영하는 동시에 성경언어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 성지연수 등 성경언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성경언어라면 어떤 언어죠?

“성경은 본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성경 원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번역되거나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 것이죠.”

- 그렇군요. 성경언어가 어렵진 않나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성경언어에 대해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 정도만 듣고 책에 면지만 쌓아놓던 수준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만난 뒤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처음 순종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처음 올 당시에는 1년 정도 아무거나 섬기자는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연구소 소장인 김명호 교수님이 섬김이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성경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시편 23편 말씀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1절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개역개정에는 ‘내게’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와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그날 창세기를 묵상하며 야곱이 요셉의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원문을



생명의 꽃을 피우려는 이성렬 선교사(복음기도신학연구소)

찾아보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죽음을 앞둔 이 순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기르신’이라는 단어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의 ‘목자’와 어원이 같았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 인생을 붙드신 주님을 만나다

-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날 또 이사야 66장 2절도 함께 생각이 났어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는 말씀도 인생 통째로 돌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성경의 원문을 공부하고 섬기는 일도 한 해 두 해 할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나를 평생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깨닫게 되면서 복음기도신학연구소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어요.”

- 말씀이 선교사님을 부르셨군요?

“그렇죠. 헌신을 결정할 무렵 우리 집에 많았던 선산을 아버지가 묘 하나로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비석 전면에 시편 23편을 써놓으셨죠. 뒷면에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후손이 이 말씀 아래 묻히기를 원하노라’고 쓰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후손들도 이 고백 안에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헌신을 확증하게 됐어요.”

“말씀 아래 묻히기를 원하노라”

- 아버님도 말씀을 따라가시는 것을 보니 선교사님 가정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신 모양이군요?

“네,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는 아버지와 형과 제 이름을 절에 올리셨습니다. 보살들도 저희 집에서 자주 머물 만큼 아주 독실하셨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릴 적 돌침을 지어가며 교회도 지으신 분이셨죠. 그러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찬양을 부르시던 할아버지 등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있던 터에 어려운 일이 생기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2년 안에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1년 12달 제사가 있던 집에서 제사도 끊겼어요. 교회 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집 주위에 모든 집이 믿는 분들이었던군요. 주변에서 다른 집

은 다 되도 저 집만은 안 된다던 집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엔 안경광학을 전공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제대 후 안경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9시에 출근해서 밤 9~10시 무렵 퇴근해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했어요. 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은 죄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허망하고 추악한 삶인 것을 알아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갈등은 어려서도 있었어요. 6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만난 기쁨도 있고, 교회에서는 모태신앙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면서도 학교에서는 싸움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상했어요. 교회에서는 칭찬은 받는데 실상 제 삶은 죄였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중 3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제 어려움을 아셨던 것이죠. 조용히 가서 기도했어요. 나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술,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주의 일하겠습니다.’”

-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셨나요?

“네.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 그런 것이 너무 쉽게 정리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고1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3일 동안 혼수상태였다가 깨어났어요. 되원 후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길을 걸어 다니며 내 목숨을 살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녔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대학시절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죄에 빠져들어 갔어요. 중학교 때 과정을 겪었지만 또 곤고해졌어요. 아무리 친구들과 어울리고 죄를 지어도 순간에 없어지

고 또다시 곤고해졌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어요. 예배도 회복되고요. 얼마 후 안경점을 차리려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암에 걸린 큰누나를 잠시 돌보게 되었어요. 큰누나와 함께 병원도 가고 기도원에도 다녔어요. 그때 직장 없는 청년들은 다른 것 말고 성전에서 말씀을 읽으라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만 보고 있는 저를 보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재정을 모아서 안경원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 놀라운 일이네요. 주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보네요.

“안경원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은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란 말씀을 들었죠. 안경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안경원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안경 씌워줄 때 손님이 내 앞에 있어야 하니까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안경 케이스 안에 전도지를 넣어주기도 했어요. 안경사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하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우리 안경원에선 늘 찬양이나 설교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경 수리하러는 많이 오는데 구매하러는 오지 않았어요. 점점 재정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하루의 첫 소득을 구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잘되면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나 잘되자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결국 안경원은 빚을 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 안타깝네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이 깨져버렸네요.

“이후 여기저기 일을 하고 있을 때, 큰누나가 소천하셨어요. 큰누나의 죽음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주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죠. 주의 일을 하겠다던...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이런 게 아니구나. 만사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기로 했죠.” [GNPNEWS]

-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만 보고 있는 저를 보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재정을 모아서 안경원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은 다 되도 저 집만은 안 된다던 집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엔 안경광학을 전공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제대 후 안경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9시에 출근해서 밤 9~10시 무렵 퇴근해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했어요. 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은 죄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허망하고 추악한 삶인 것을 알아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갈등은 어려서도 있었어요. 6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만난 기쁨도 있고, 교회에서는 모태신앙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면서도 학교에서는 싸움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상했어요. 교회에서는 칭찬은 받는데 실상 제 삶은 죄였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중 3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제 어려움을 아셨던 것이죠. 조용히 가서 기도했어요. 나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술,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주의 일하겠습니다.’”

-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셨나요?

“네.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 그런 것이 너무 쉽게 정리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고1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3일 동안 혼수상태였다가 깨어났어요. 되원 후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길을 걸어 다니며 내 목숨을 살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녔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대학시절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죄에 빠져들어 갔어요. 중학교 때 과정을 겪었지만 또 곤고해졌어요. 아무리 친구들과 어울리고 죄를 지어도 순간에 없어지



▶ 헤브론원형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성렬선교사

고 또다시 곤고해졌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어요. 예배도 회복되고요. 얼마 후 안경점을 차리려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암에 걸린 큰누나를 잠시 돌보게 되었어요. 큰누나와 함께 병원도 가고 기도원에도 다녔어요. 그때 직장 없는 청년들은 다른 것 말고 성전에서 말씀을 읽으라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만 보고 있는 저를 보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재정을 모아서 안경원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 놀라운 일이네요. 주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보네요.

“안경원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은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란 말씀을 들었죠. 안경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안경원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안경 씌워줄 때 손님이 내 앞에 있어야 하니까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안경 케이스 안에 전도지를 넣어주기도 했어요. 안경사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하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우리 안경원에선 늘 찬양이나 설교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경 수리하러는 많이 오는데 구매하러는 오지 않았어요. 점점 재정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하루의 첫 소득을 구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잘되면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나 잘되자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결국 안경원은 빚을 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 안타깝네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이 깨져버렸네요.

“이후 여기저기 일을 하고 있을 때, 큰누나가 소천하셨어요. 큰누나의 죽음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주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죠. 주의 일을 하겠다던...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이런 게 아니구나. 만사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기로 했죠.” [GNPNEWS]

은 다 되도 저 집만은 안 된다던 집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엔 안경광학을 전공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제대 후 안경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9시에 출근해서 밤 9~10시 무렵 퇴근해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했어요. 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은 죄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허망하고 추악한 삶인 것을 알아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런 갈등은 어려서도 있었어요. 6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만난 기쁨도 있고, 교회에서는 모태신앙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면서도 학교에서는 싸움도 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상했어요. 교회에서는 칭찬은 받는데 실상 제 삶은 죄였으니까요. 그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중 3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제 어려움을 아셨던 것이죠. 조용히 가서 기도했어요. 나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술,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주의 일하겠습니다.’”

-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셨나요?

“네.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 그런 것이 너무 쉽게 정리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고1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3일 동안 혼수상태였다가 깨어났어요. 되원 후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길을 걸어 다니며 내 목숨을 살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녔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대학시절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죄에 빠져들어 갔어요. 중학교 때 과정을 겪었지만 또 곤고해졌어요. 아무리 친구들과 어울리고 죄를 지어도 순간에 없어지

고 또다시 곤고해졌죠.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주셨어요. 예배도 회복되고요. 얼마 후 안경점을 차리려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암에 걸린 큰누나를 잠시 돌보게 되었어요. 큰누나와 함께 병원도 가고 기도원에도 다녔어요. 그때 직장 없는 청년들은 다른 것 말고 성전에서 말씀을 읽으라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만 보고 있는 저를 보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재정을 모아서 안경원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 놀라운 일이네요. 주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나 보네요.

“안경원을 시작할 때, 직장 생활은 부업이고 전도가 본업이란 말씀을 들었죠. 안경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안경원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안경 씌워줄 때 손님이 내 앞에 있어야 하니까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안경 케이스 안에 전도지를 넣어주기도 했어요. 안경사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게 하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우리 안경원에선 늘 찬양이나 설교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경 수리하러는 많이 오는데 구매하러는 오지 않았어요. 점점 재정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하루의 첫 소득을 구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했어요. 잘되면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나 잘되자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결국 안경원은 빚을 지고 문을 닫게 됐어요.”

- 안타깝네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이 깨져버렸네요.

“이후 여기저기 일을 하고 있을 때, 큰누나가 소천하셨어요. 큰누나의 죽음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주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났죠. 주의 일을 하겠다던...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은 이런 게 아니구나. 만사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기로 했죠.”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영원한 사랑의 복음 (3)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위기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해법은 사랑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고전 16:22)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에베소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칭찬 받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다. 진리를 지키려고 투쟁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싸움엔 이겼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사랑을 잃어버린 무관심이다.

이처럼 교회는 위기 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혈과 육에 대하여 싸우지 않는다. 거룩한 복음을 만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가끔 사람, 사건, 상황과 싸우느라 싸움의 진정한 대상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

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엡 6:12).

교회는 영적으로 전시 상태에 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휴전은 없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모든 현상의 배후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와 교회의 운명은 이 나라의 정부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결정 된다.

구약 성경 다니엘 또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바벨론 제국의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를 세우시고 낮추셨던 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역사는 난세의 영웅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



일러스트=노주나

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시편 2편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시 2:1~3). 이것이 복음에 승복하지 않는 세상의 반응이

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은 비웃으시며 분을 발하며 진노하시라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선포하신다(시 2:4~6).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보좌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지

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두셨다. 그리고 선포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시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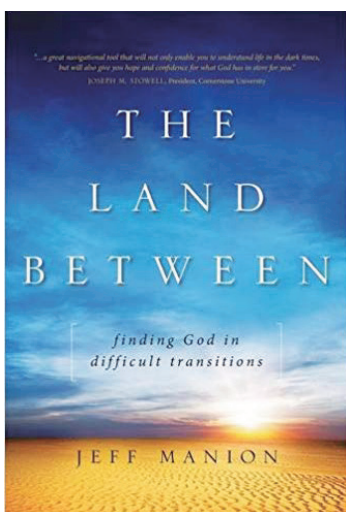
마지막 시대, 고통하는 때에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이 역사의 귀결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교회는 총칼 하나 들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기도로 온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7년 5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5)

‘그 땅(אֶרֶץ, 하아레츠)’이 주는 복음



▶ 제프 마니언의 'The Land Between' (2012) 표지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되는 성경 지리를 살펴보자. 성경의 역사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의 현장인 바로 ‘그 땅(אֶרֶץ=하아레츠)’, 즉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 그 땅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데 성경언어 다음으로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땅은 실제로 다른 땅과 달라서 성경 지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땅이 복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의 중요성을 말한다.

하나님 구속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볼 때 대

륙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이며 특히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곳은 중요한 도로가 나 있었다. 성경 시대의 도로를 이해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명칭도 다양하다.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끈 중요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 ‘사이의 땅(THE LAND BETWEEN)’.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여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호시탐탐, ‘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철저히 받았던 땅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사이에) 있게 하였거늘”(겔 5:5)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출 34:24)

이방 나라들 사이에 둘러 있는 그 땅의 자연이 이루어 놓은 고대 팔레스틴의 광활한 동서남북의 경계(민 34:2,12)를 보노라면 그곳에서

기록된 성경이 보다 가까이 입체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실감나게 알 수 있다. 하늘을 보면 살고 땅을 보면 죽는 ‘사이에’ 놓여있는 땅, 가나안 땅!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온 장소인 요단강은 신구약의 구속 역사가 중첩된 곳이다. 히브리어를 알면 더욱 은혜가 되고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다. 왜? 요단강은 여호수아와 예수의 첫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던 곳이다. ‘여호수아(יְהוֹשֻׁעַ)’와 ‘예수아(예수님, יֵשׁוּעַ)’ 두 이름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문자(עֵשֶׂת)도 같고 뜻도 동일하다.

‘구원(קוּמָה)’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예수님은 아무대서나 무턱대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약속의 성취요 역사의 성취였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입성시켰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참 가나안(하나님 나라)으로 이끄셨다. 요단강 앞에 믿음으로 발을 딛고 들어섰을 때

복음기도총서1

복음기도복음과기도미디어
GROUP & PRAYER MEDIA

내가 구한다
뜯어주는
전도전지
100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
뜯어내 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어디서든 전도를 멈추지 말라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김정화 저

별책부록의 전도편지를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값: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구입문의 | 아진과 보아스 032-887-0235 | www.jakinnboaz.co.kr

그 강은 갈라졌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닫혀 있었던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이다(막 1:9-11).

이스라엘 그 땅을 직접 보고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치가 있다. ‘그 땅(אֶרֶץ)’이 주는 복음을 듣고 배워 우리 안에 하늘이 갈라지는 음성이 들려지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죄악 된

속사람이 더욱 변화하여 그 날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으로 달려가도록 말이다. 주여! 우리를 ‘그 사이의 땅(The Land Between)’으로, 열방이 ‘탐하는’ 거룩한 나라로(속 8:23),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소서!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이전에 나는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행복, 슬픔, 즐거움, 화남, 두려움, 질투, 귀찮음, 외로움 외에도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된 감정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중심이 된 생명 없는 감정표현은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킨다. 왕따를 시키거나 시비를 걸며 싸우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지난해 일본 학교에서 일어난 왕따 피해는 최소 41만 건, 그 중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은 약 14만 명이라고 한다. 한국은 '묻지마 살인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나와는 관계없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화풀

이 또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다. 학우들과의 관계에서 경어를 사용하지만, 지체를 배려하지 않는 말투나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냐'는 설문에서, '말 때문에'(4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이다. 감정에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듯 말에도 그렇다. 우리의 말은 그저 내뱉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은 힘이 있어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왜 숨기려 할까? 설문에서 답한 친구들은 '상대방이 싫어 할까봐, 귀찮아서, 판단 받을까봐, 내가 유리해지기 위해'라고 말했

다. 진짜 자신의 마음을 숨긴 거짓된 감정표현은 진실된 관계, 곧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한다. 물론 늘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표현을 통해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중심이 된 감정표현은 곧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렇다면 새 생명으로 하는 감정표현은 무엇일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잠 4:23-24)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패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 지체와



일러스트=고은선

의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느껴지는 감정대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전에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는 좋은 관계를 위해 거짓된 감정, 꾸며낸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내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해 주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말씀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후회한다'고도 하시고 '분노했다'고도 하신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신 이유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표현이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우리 사랑을 지체들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자인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한다. [GNPNEWS]

김리우(19)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북한 당국에서 배급받지 못하는 영예군인 생존권 위협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이웃 중 하나인 북한 주민과 기독교인들에 관한 소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중증 장애를 입고 제대한 영예군인(상이군인)들이 북한 당국에서 우대물자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고로 인한 이혼과 배우자 가출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황해북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송림지역 특류 영예군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던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이혼하거나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 영예군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영예군인 남편을 시중드느라 장사도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여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특류 영예군인이란 군 복무기간에 두 다리를 잃거나 하반신이 마비되어 간단한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중증 장애 제대군인이다. 규정대로라면 일생 동안 나라에서 특별공급대상으로 쌀과 우대 물자를 공급해 주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나라의 책임을 여성들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나라를 지키다 불구

자가 된 영예군인을 애국자이라며 영예군인과 결혼하는 여성들 시대의 아름다운 꽃, 충신중의 충신이라고 평가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일 년 전 송림시에서 특류 영예군인과 결혼한 한 30대 여성은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던 농민이었는데 당 간부로부터 성분 좋은 영예군인 총각과 결혼해 도시에서 살면 앞으로 자식들의 전망도 문제없다는 선전에 속아 결혼하게 되었으나 식량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격이 일그러진 남편의 폭력까지 심해져 자 집을 뛰쳐나왔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신의주에 있는 영예군인학교는 영예군인들에게 통계, 설계 등 전문기술지식을 가르쳐주고 간부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면서 이 학교를 졸업한 영예군인은 영예군인 공장, 혹은 일반 공장기업소 간부로 배치되어 출세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뒷배와 재력이 없으면 입학할 꿈도 꾸지 못한다고 전했다. 높은 간부이거나 부유한 부모를 둔 영예군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만 가난한 영예군인들은 가정과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GNPNEWS]

2019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모집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1. 모집 대상**
 - 2019년 현재 4학년(2009년생), 6학년(2007년생), 8학년(2005년생), 10학년(2002~2003년생)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2.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 접수 기간: 2019년 7월 6일(토)부터 ~ 2019년 7월 29일(월) 소인까지
 -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아래 문의처 확인)
- 3. 입학설명회**
 - 2019년 7월 6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19.6.10(월)부터 ~ 2019.6.29(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외 거주 학생의 경우 개별 문의 바랍니다).
- 4.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발표 2019년 8월 3일)
 - 2차 면접 및 필기고사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019년 8월 17일(토)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년 9월 3일(화) 입학식
- 5. 문의 및 접수처**

010-8344-1718, 010-5346-4642 헤브론원형학교 입학사무처 hebronschool@hanmail.net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구 시온수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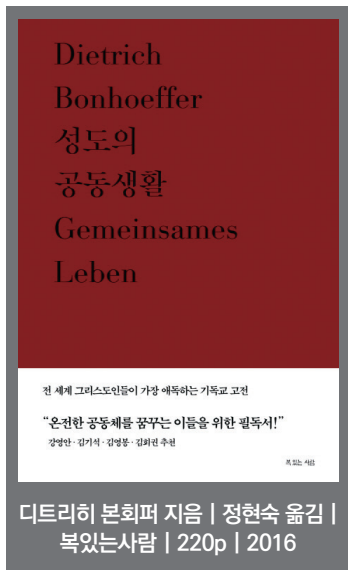
2019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헤브론원형학교는 초 6학년-고 3학년 연령의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형제 자매를 대상으로 헤브론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7.1(월)-4(목)까지 3박4일간 개최합니다. 목상과 복음 강의, 복음 스킷, 기도회, 소그룹 모임의 형태로 헤브론원형학교(충남 서산)에서 진행될 이 캠프 참여 희망자는 5.20(월)-6.7(금)까지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원서는 홈페이지 (www.theschoolhebron.org)를 통해 다운로드 하여 우편접수 하면 됩니다. 회비 10만원 문의: 010-2461-1718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디트리히 본회퍼 <성도의 공동생활>

나의 영적상태가 곧 공동체의 영적상태



선교사로 헌신하여 공동생활을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공동체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렸지만 어려운 시간도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익숙한 나의 경험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명확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

는 글을 읽으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도의 공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더욱 진리의 튼튼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본회퍼는 책의 서두에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누려야 할 공동생활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이나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단 한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긴다.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하든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돌아보게 되었기에 본회퍼의 다음과 같은 도전들이 더욱 마음에 새겨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는 사림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한다. 우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뤄져야 한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속한 자가 성도이다.

고발자가 아닌 감사하는 자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을 방해하게 된다. 우리에게 약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받는다면 공동체는 날마다 더욱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랄 것이라고 말한다. 부족한 것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지체 사랑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인가, 아니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지체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영적인 사랑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서로를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 아닌 것으로 공감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며 그리스도로 일치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기 훈련은 공동체를 섬김으로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홀로 있으면서도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흠집을 낼 수 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또는 타락시킬 수도 있다. 한 사람의 영적상태는 공동체의 영적상태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각 사람은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성찬에 임하는 모습이 복음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되어 감사했다. 공동체에 주신 모든 축복을 진리 안에서 더욱 원형으로 누리며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성만찬의 삶으로 나 자신을 다시 주님께 드린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체와 교제하며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공동체를 누려야겠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 축복을 함께 누리므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교완성의 그 날을 맞이하기를 기도한다. [GNPNEWS]

정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달리는 차에서 뒷바퀴가 빠졌다”

얼마 전 트럭에 흠을 잔뜩 신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흠을 너무 많이 실은 터라 무겁기도 하고 차가 흔들거려서 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만 뒷바퀴가 빠지고 말았다. 다행히 갓길로 바로 빠질 수 있어서 나를 포함한 3명의 동승자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차의 뒷바퀴가 빠져서 한쪽이 주저앉은 상태였고 바퀴는 차 뒤쪽 갓길에 튕겨 나가 있었다. 빠진 바퀴가 고속도로 위에 떨어지거나 뒤차에 부딪혔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다. 하지만 다행히 갓길로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들도 안전했고, 우리도 안전했다. 나는 그 순간 마음 속에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고 자연스레 아침에 묵상했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 4:48)는 말씀이 기억났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그렇다면 이게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믿음 없음을 다루시는 건가? 우리 중 누구에게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신 걸까?'

그러던 와중, 뒤편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갓길에 서 있는 바퀴 빠진 트럭과 밖에 서 있는 우리를 구경하며 지나가던 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뒤 따르던 차들이

줄줄이 앞차를 들이 박아 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확신했다. 주님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나 은근히 내 마음속에서는 그 화살이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향해 있었다.

다음날, 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갑작스럽게 내게 "우리 아빠 좋아요."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어떤 분인가?' 내가 말 안 듣는다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 내가 또 주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생명의 주

사탄은 가장 핵심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건드렸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 라고 매일 입으로는 찬양해놓고,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성품부터 의심하게 된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뭘 또 잘못했는지 따지고, 지체들을 향해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는 죄인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셨다.

고속도로에서 주님이 내게 허락 해주신 이 일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바퀴가



일러스트=이수진

빠졌는데 누가 이렇게 멀쩡히 돌아올 수 있을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제야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생각난 주님의 말씀. "네가 기적과 표적 없이는 도무지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자신의 병든 아들을 살려 달라고 간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요 4:50)는 말씀 한마디로 그를 집에 돌려보내셨다. 그는 예수님의 이 한 마디 말만 믿고 돌아가던 중에 아들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와 그의 온 집안은 주님

을 믿게 된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좋은, 좋지 않든,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면 되는 것이다. 가장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면 된다.

기본적이지만, 내가 가장 놓치고 있었던 영역을 다시 짚어주시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준다. 폭풍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내 생명 되신 주께 다시 한 번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린다. 그러기에 너무나 합당한 나의 선하신 아버지니까. [GNPNEWS]

백지현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4. 18 ~ 5. 2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김경선 김사희 김성훈 김애심 김혜신 노은옥 박숙자 손예린 안수경 은종숙 이경형 이영옥 이위향 이은주 이진희 장미자 정영숙 정혜월 조경미 조명숙 조재순 조형광 주유순 차정규 무명

교회 및 단체

(주)탐산식품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버거데이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돌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웹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신한테크 열매교회 주만교회 주님교회 주소망교회 죽전교회 주식회사미션21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